한국고전연구 33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6/179~207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16.33.179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의*

정선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고전서사문학에서의 사회관계 속 노년상
3.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가족관계 속 노년상
4. 나오는 말 - 가족갈등과 노인소외의 해법으로서의 고전문학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전서사문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노년의 모습을 살피고 난 뒤, 다른 고전서사문학 하위유형들에 비해 가족관계 내에서의 노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양상을 살폈다. 이때에는 손자와의 관계가 부각되었으며, 조부모가 된 이후의 나이에 감당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주로 논의되었다.

현대에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밀접하거나 화목하지 않아 소외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므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 고전서사문학에서 노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는지, 가족 관계 내에서는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지향하던 노년상, 부모자녀관계, 조손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로 등장한다. 어떤 갈등 상황이나 문제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지혜를 지닌 이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www.kci.go.kr

우리 서사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에서도 그러하다. 여기서의 노인은 혜안과 신통력을 지닌 문제 해결자로서 신령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후의 여타 고전서사문학에서도 노인이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성 노인은 주로 '견문이 넓고 지혜가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우화소설 <두껍전>이나 연암이 지은 <민옹전>에서의 어른이나 영감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여성 노인은 할미 또는 노파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데, 주로 말을 잘하고 갈등을 조정하거나 인연을 매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19세기의 애정소설인 <절화기담>이나 <포의교집>의 노파들, <동래들놀이>의 미얄할미 등이 바로 말을 잘하고 노련하며 생활력이 있는 여성 인물들이다. 남성 노인은 좌장(座長), 수장(首長), 문제 해결자로서의 면모가 강한 것에 비해, 여성 노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매개자, 자기 삶의 개척자로서의 면모에 그쳐 한 집단의 어른으로서의 위상은 없었다는 면에서 차별적이다.

이렇게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은 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기에 '노인', '노파', '할미' 등으로 불렸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기능하거나 갈등 해소를 지연시킴으로써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주로 가족 관계 속에서의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조부', '조모',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자손들을 엄하게 교육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예법을 잘 지키고 능력도 뛰어나며 늙어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손자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며 신체 접촉도 아끼지 않는 등 색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집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묘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화해와 위로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년의 인물들은 한 집안의 어른이라는 위치이기에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가문 전체의 위상 정립이나 유지를 위해 일을 처리하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년의 인물들은 한 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나라에서도 존경하고 축수(祝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노년의 인물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컸고, 비슷한 연령의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등 벗이 되어 주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노년상과 가

www.kci.go.kr

족 관계는 현대의 가족 갈등과 노인 소외의 해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이 문제들이 정신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소양을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노년, 노인, 조부모, 어른, 가족, 고전서사문학, 국문장편 고전소설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현대의 가족 갈등과 노인소외의 해법으로서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을 살피려 한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빈곤과 고독이 힘들게 하며, 가족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화목하지 않아 소외와 갈등이 야기되고,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고전서사문학에서 노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는지, 가족 관계 내에서는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지향하던 노년상, 부모자녀관계, 조손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년이나 노후의 문제는 주로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분야 등에서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현대문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며[1],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노년 여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후기의 고전시가 특히 <노인가>류 가사와 민요, 사설시조 등에서는 노년 여성이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로부터 소외되고 젊음으로부터도 소외된 이중

1)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 박사논문, 1996. ; 전흥남,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최일남과 문순태의 소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14, 2009. ; 전흥남,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 II, 『현대문학이론연구』 44, 2011.

www.kci.go.kr

타자화된 존재로 살아갔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가부장적 질서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외면은 추레하고 행동은 볼썽사납게 묘사되어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녀들의 성적 욕망은 희화화되었던 것이다. 노년의 남성도 젊을 때와는 다른 낯설고 힘든 경험을 하며 현명하거나 달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특히 여성은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었기에 더욱 더 타자화 되었다.[2] 그러나 노년기 여성들이 자신의 늙고 아픔 몸을 인식하고 자기술회적 목소리를 낸 시가들을 보면 진지한 내면 성찰과 건강한 자존감이 표출되어 있기도 하다.[3]

특히 회혼(回婚)을 소재로 한 가사 작품들은 부부가 모두 건강하고 자손들이 번창함을 기뻐하면서 송축하는 내용, 가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계녀가>류나 <노인가>류와는 다른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에서도 시적 화자의 내면이 표출되면서 힘들었던 과거를 담담히 되새기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회혼의 주인공과 그 자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기에 이를 읊는 화자의 시선에는 일종의 경외감이 스며있고, 특히나 출가한 여성이 친정 가문에서 거행된 회혼례에 참석한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되기에 자긍심을 표출할 수 있었다.[4]

한편, 17~19세기 상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서(壽序)에서는 찬탄의 대상이 된 여성의 삶이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 등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2) 이수곤,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57~85쪽.

3) 정인숙,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123~158쪽.

4) 정인숙,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문학치료연구』 19, 2011. 4, 113~141쪽.

www.kci.go.kr

의무에 충실한 삶을 의미했기에 신체의 노화에 대한 서술은 드물고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와 선망의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수서라는 문예 양식이 회갑(回甲) 등의 생애 주기를 맞이한 이에게 수연(壽宴)을 베풀어 그 자리를 축하하는 글을 서문의 양식으로 서술한 글이기에, 노년의 여성의 행복과 장수, 전범으로서의 여성적 삶, 품성과 처신에 대한 칭탄들이 주로 담겨 있었다.[5]

근현대 문학에서 '노인'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소설에 등장하는데, 가부장의 절대권위를 놓지 않으려는 '욕심'과 실제로는 점차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자신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이의 '자괴감'의 힘겨루기 사이에 자리한 남성 노인의 형상이 그것이다. <삼대>의 조의관과 <태평천하>의 윤직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이태준의 <박물장수 늙은이>, <영월영감> 등에서의 노인들은 추상적 '가장'으로서의 전형성을 벗어 던진 자신의 욕망과 자기실현을 향한 능동적인 면을 보여주며, 유진오의 <창랑정기>에 이르면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노인의 모습이 보여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모습을 잇는 면이 있다.[6] 이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노년의 작가가 노년의 삶을 주로 다루고 노인을 서술자나 초점화자로 설정하여 서사화한 소설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는데 이를 '노년소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산업화, 도시화되는 세태의 비정함을 통해 노인의 소외된 삶을 다루는 노인문제 소설들과, 노년의 원숙함과 지혜를 보여주거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소설들이 함께 지어졌다.[7] 이청준의 소설들에서는 지혜를 지니고 있는 남성 노인이 서사의

5) 최기숙, 「노년기 여성적 삶의 공론장, 17~19세기 여성 대상 수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87~129쪽.

6)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21, 2012, 15~17쪽.

7)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 2008, 531쪽.

www.kci.go.kr

진행을 주도하면서 화자의 목소리를 앞서 이끌어가고 있어 노인화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완서의 소설에서는 노인의 연애, 재혼,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이야기가 구축되어 노인성과 젠더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최일남의 소설에서는 노년의 일상과 함께 여유롭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향하는 소설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8]

1960년대 이후의 단편소설들에 함축된 노인 이미지의 변천을 보아도 흥미로운데, 1960년대 소설에서는 노인이 타자화, 주변화 되면서 노쇠하고 무력한 노인, 가족의 짐이 되는 어머니, 가난한 늙은 노파 등의 모습이 그려져 대가족이 안고 있는 세부적인 갈등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70년대 소설에서는 탈시장화, 비생산성의 낙인화, 빈곤화와 비주체화되면서 탈시장화된 '그들'로 나타났다. 지혜로운 충고자, 조상의 얼로 기억되는 정신적 지도자의 모습과 함께 노인다운 끈기와 옹고집의 가장, 자식사랑이 깊은 가난한 어머니, 버려진 치매 노인 등의 모습이 기술된다. 가족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책임 촉구, 대책의 시급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80년대 소설에서는 피부양자로서의 짐과 같은 존재라는 면에서 서사화 되었으며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시장화하고 노인 부양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90년대 소설에서는 잉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리면서 빛바랜 가족사진처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불안을 느끼는 노인의 모습, 정물화된 모습과 함께 자아를 실현하고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모습을 서사화하였다. 2000년대에는 자의식을 지닌 노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주체적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모색하거나 강인한 생명력과 현실적 태도, 노환과 노추, 노인 간병과 죽음에 이르는 길,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의 모습 등이 나타난다. 노인 스스로 자

8) 서형범, 앞의 논문, 26~29쪽.

www.kci.go.kr

신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고 두려운 의문을 지니거나 급변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는 등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사화한다.[9]

이와 같이 현대문학에서는 소외된 노인들의 자괴감과 고통을 주로 드러내었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력과 현실적 태도, 지내온 삶에 대한 반성과 죽음에 임하는 자세 등이 서사화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여 노인들의 심리나 생활을 잘 보여주고는 있지만, 노년에 이른 이들의 소외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첨예해져가는 가족 갈등을 풀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힘든 면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고전서사문학에는 노년의 모습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가족 간에 화목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듯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고전서사문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노년[10]의 모습을 살피고 난 뒤, 다른 고전서사문학 하위유형들에 비해 가족관계 내에서의 노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때에는 손자와의 관계가 부각될 것이며, 조부모가 된 이후의 나이에 가족관계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

9) 김성희, 「한국 문학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9. 5, 217~242쪽.

10) 본고에서는 '나이가 들어 늙은 때'라는 의미의 '노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와 가족 관계 속에서를 모두 고찰하기에 적절하다. '노인'이라는 단어도 뜻은 비슷하지만 가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호칭)이기에 사회관계 속에서의 노년상을 고찰할 때에만 거론한다. 현대에는 65세 이상의 나이를 노인이라 하는데, 고전문학에서는 대체로 40대부터 노인이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작품 내에서 '노인', '노파', '어른', '옹(영감)', '할미'라고 불리거나, 손자를 두어 할아버지, 할머니라 불리는 사람들을 '노년', '노인'이라 보았다.

www.kci.go.kr

2. 고전서사문학에서의 사회관계 속 노년상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은 가족관계 속에서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로 등장한다. 어떤 갈등 상황이나 문제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지혜를 지닌 이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서사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에서도 그러하다.

먼저, <헌화가>를 부른 노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모가 뛰어난 수로부인을 용이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자 계책이 없다면서 실의에 빠진 순정공에게 해법을 제시해준 인물이다.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 쇠 같은 물건도 녹이므로 바다 속의 짐승도 뭇사람의 입을 두려워할 것이라며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자 그대로 하여 부인을 되찾는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움을 보이는데, 이에 더하여 <헌화가>를 통해 노인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욕망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금갑>에서 비처왕에게 편지를 올린 노인도 있는데, 그도 비범한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떼어보면 둘이 죽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쓰인 편지를 올렸는데 이를 보고 왕이 한 사람만 죽는 게 낫다고 여겨 떼어보지 않으려 하다가 점치는 관리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떼어보았더니 ‘사금갑(射琴匣)’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노인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가 수수께끼 같은 모호성을 지니고 있기에 비범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11]

<거타지>이야기에서도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다의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늙은 여우에게 자손들을 빼앗기곤 하다가 거타

11) 이수곤, 앞의 논문, 60~61쪽.

www.kci.go.kr

지의 활 쏘는 솜씨를 빌어 그 여우를 죽게 한다. 물론 활은 거타지가 쏘았지만 상황의 원인을 꿰뚫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딸을 꽃으로 변하게 하거나 용들을 지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혜를 넘어선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용왕이나 산신과 비슷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면모를 지닌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서의 노인은 혜안과 신통력을 지닌 문제 해결자로서 신령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의 여타 고전서사문학에서도 노인이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성 노인은 주로 '견문이 넓고 지혜가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우화소설 <두껍전>에서는 여우와 두꺼비가 윗자리를 다투면서 서로 어른이라고 주장하는데, 두꺼비가 산천 풍경과 명승고적(名勝古蹟)들의 유래와 역사를 잘 말하는가 하면 천문지리(天文地理)와 육도삼략(六韜三略), 의약복술(醫藥卜術)까지 꿰뚫고 있어 여우를 이긴다. 이 이야기에서의 '어른'은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아는 사람, 즉 견문과 지식,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연암 박지원의 <민옹전>의 주인공 '민옹'도 지혜와 안목이 뛰어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우울증으로 밥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잔다는 연암에게 이것은 오히려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시간을 길게 사는 것이니 복이라고 해석해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말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심리와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는 책을 많이 읽어 학문에 능했고 포부가 크며 상황 적응력이 뛰어났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늘 우울하고 병약했던 연암은 그와의 대화 덕분에 삶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성 노인은 할미 또는 노파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데, 주로 말

www.kci.go.kr

을 잘하고 갈등을 조정하거나 인연을 매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동래들놀이>의 '미얄할미'는 할미과장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영감, 젊은 첩과 삼각관계에 놓인 인물이다. 전국을 유람하다가 영감을 만나게 되지만 삼각관계 속에서 고통 받고 영감에게 멸시 받는 불행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상황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발랄한 화술을 구사하며 배꼽이 드러나는 저고리를 입는 등 생명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가난에 찌들고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섹시하고 적극적이기도 한 이중성을 지닌 독특한 인물형인 것이다.[12] 특히 그녀는 '얄미우리만치 말을 잘 한다.'라는 특성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고전서사문학에서 여성 노인들의 중요한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19세기의 애정소설인 <절화기담>이나 <포의교집>의 노파들이 바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노련하며 생활력이 있는 여성 인물들이다. 특히 <절화기담>의 노파는 여주인공 순매를 만나고 싶은 남주인공 이생의 애를 태우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할미인데, '무슨 일에든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 해서 사람을 소개하여 맺어주는 일에 본래부터 노련한 솜씨가 있는'[13] 사람이다. 그녀를 통해서만 순매를 만날 수 있기에 이생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며 아프다고 하면 약값을 쥐어주는 등 비위를 맞춘다. 그런데도 늘 아슬아슬하게 애를 태우면서 이생과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미루면서 이생의 피를 말린다.

12) 박경신, 「톡톡 튀는 화법에 섹시한 배꼽저고리」, 『우리 고전캐릭터의 모든 것』 3권, 휴머니스트, 2008.

13) 작자미상,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42쪽.

www.kci.go.kr

이생이 즉시 노파에게 얼마의 엽전을 주었다. 이로부터 이생이 여러 번 노파에게 갔으나, 가면 일이 어그러지곤 하였다. 달포쯤 지나 다시 가보니, 노파가 잔뜩 성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난 빛으로 말하였다.

"이후로 다시는 순매년의 말일랑은 제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침을 튀기며 노파가 말했다.

(중략)

말이 끝났는데 그 어투나 기색이 몹시 사나웠다. 이생이 재삼 마음을 풀라고 했으나 도저히 마음을 돌이킬 희망이 없어서 처참한 기분으로 머뭇거리다가 하릴없이 돌아왔다.

(중략)

이생은 마음이 동하여 순매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이생은 곧 벗들과 헤어져 지름길을 택해 자기 동네로 가서는 길을 돌아 노파를 찾아갔다. 때는 한밤중이라 사람의 자취라고는 없었다. 이생이 문을 밀고 곧장 들어가자 노파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상공께서 갑자기 깊은 밤중에 여기에 오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는지요?"

"오랫동안 자네를 못 봤더니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서 이렇게 왔다네. 특별히 한 번 만났으니 술이나 실컷 마시면서 한편으로는 자네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달래고자 하네. 자네는 어쩌면 이다지도 박정하단 말인가?"

노파가 감사하며 말했다.

"상공이 지금 오신 것은 순매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니시지요. 어찌 저 때문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밤도 깊은데 이렇게 오셨으니 어찌 감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 바라건대 할미는 다시 한 번 좋은 마음을 내서 다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 주오."

www.kci.go.kr

노파가 한참을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이 늙은이가 요즈음 귀가 잘 안 들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 한답니다. 상공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략)

"할미는 꾀주머니요, 생각 보따리일세. 그 작은 뱃속에 이런 조화 속을 지니고 있다니. 만약에 할미가 삼국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족히 여자 책략가가 되었을 것을!"

이생은 바로 얼마간의 돈을 노파에게 쥐어주며 술과 안주를 준비할 비용으로 쓰게 하고는 노파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1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생은 노파의 도움을 구하려고 쩔쩔매고 노파는 이를 놀리는 듯 잘 안 들린다고 하다가 겨우 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하라고 방법을 알려 준다. 이에 감탄한 이생은 또다시 노파를 고마워하면서 칭찬하고 돈을 주고 가는데, 그 후에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순매를 만나기가 어렵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파에게 화를 냈다가 고마워했다가를 반복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작 여주인공 순매와 직접 만나는 장면은 적고 노파와 이생의 대화 장면이 더 많은 것이다. 서사의 마무리도 노파가 순매의 이별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듣고는 이생이 이제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고 여겨 긴 시를 한 편 쓰는 것으로 끝난다.

여성 노인의 말솜씨, 꾀, 노련함 등의 특성을 잘 살려 서사를 전개해 나간 작품으로 <포의교집>도 들 수 있다. 장진사를 따라 서울에서 살게 된 충청도 선비 이생이 그 동네의 새색시 초옥에게 반하여 그녀에 대해 묻기도 하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기도 하는 노파가 있다. 당파(堂婆) 즉

14) 작자미상,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62~66쪽.

www.kci.go.kr

당할멈이 바로 그녀인데 <절화기담>의 노파와는 달리 두 남녀주인공의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생과 한동안 이별한 뒤 초옥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전하거나 갑자기 다시 온 이생과 초옥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주인공들이 마음 아파할 때에는 위로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남녀 사이, 집과 집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말을 잘하고 사태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면에서 남성 노인들이 지혜와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남성 노인은 좌장(座長), 수장(首長), 문제 해결자로서의 면모가 강한 것에 비해, 여성 노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매개자, 자기 삶의 개척자로서의 면모에 그쳐 한 집단의 어른으로서의 위상은 없었다는 면에서 차별적이다.

3.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가족관계 속 노년상

앞에서 살핀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은 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기에 '노인', '노파', '할미' 등으로 불렸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기능하거나 오히려 갈등 해소를 지연시킴으로써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기능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주로 가족 관계 속에서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조부', '조모',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15]

15) 본고에서 2장과 3장으로 나누어 고찰하게 된 것은 귀납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고전서사문학 전체 유형에서 노년상을 점검한 결과, 국문장편 고전소설 유형에서만 유독 가족 관계 속에서의 노년상이 유의미하게 형상화되어 있었고 그 외의 유형에서는 매우 소략하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노년상이 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www.kci.go.kr

1) 엄한 교육과 철저한 자기 관리

17세기 중후반에 지어졌다고 추정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인 <소현성록>연작의 양부인은 엄한 가모장(家母長)의 위상을 지닌 인물이다. 아들에게도 엄격했지만 노년에 손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모골이 송연하고 식은땀이 났다고 할 정도로 엄하게 교육한다.

> 태부인이 한 번 눈길을 흘려 안색을 살피고 나서 여러 손자들을 당에 오르라고 하고는 천천히 탄식하며 말하였다.
>
> "자식이 불초하면 어버이에게 욕이 이른다. 그러니 어버이를 팔고 가문에 불행을 끼치는 자식은 외아들이라도 차라리 후사(後嗣)를 돌아보지 말고 죽여야 옳다. 부자간의 천륜(天倫)이 비록 중하지만 이 같은 강렬한 뜻은 문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일개 부인이지만 젊은 날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네 아비가 만약 불초하면 내가 당당히 먼저 죽여 가문에 욕됨을 더하지 않고 아울러 나도 죽어 설움을 잊어야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러나 30여 년에 이르도록 하나도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집 밖에 나가서는 조정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었다고 하니 잠시 마음을 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잘 못하는 일이 있어 맹자(孟子) 어머니의 가르침에 죄를 얻을까 걱정한다.
>
>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로 어미젖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득 부모를 물리치고 때를 틈타 거문고·가야금을 만지며 노랫소리를 늘이며 창녀를 끼고 앉아 태도와 행실이 지극히 패려하였다. 그러니 그 아비 된 사람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며, 그 어미 된 사람이 어찌 놀라지 않겠느냐? 경은 부끄러워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그 어미들은 도리어 다스리는 것을 원망하고, 아들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여 후회할 줄 모르고, 그 아내들은 각각 시아비가 너무 심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러니 어찌 한 무리 예의를 모르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내 아들은 모름지기 부자의 정에 거리끼지 말고 매몰차게 다스려 열 아이들이 방자한 데에 빠져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이 너희 부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네 부친께 미치지 않게 하여라."

www.kci.go.kr

말씀을 마치니 좌우에 모셨던 사람들이 모골이 송연하여 식은땀이 옷에 젖고 온 몸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였다.[16]

물론 가르침을 들은 손자나 며느리들이 뉘우칠 때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보임으로써 분위기를 풀어주기는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 또 손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며느리들이 할 일이지만 그녀들이 아이를 느슨하게 가르치거나 잘 못 가르칠 때에는 그녀들을 꾸짖음으로써 손자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도 조부모들이 어느 정도 손자 교육에 관심을 가지거나 과거 시험 응시 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부인처럼 엄하게 다스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양부인은 나이가 많지만 정력이 쇠하지 않았고 병도 없어 노인의 괴로움이 없다고 되어 있다. 젊은이들보다 더 윤택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다.[17]

남성 노인의 예로 <소현성록>의 소현성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 저녁에는 자손들을 데리고 서헌(書軒)에서 시(詩)와 부(賦)를 지어 문장을 권하면서 노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연못의 풀을 베거나 계단의 이끼를 쓸면서 제갈공명의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곡식의 풍흉을 논하거나 호미로 김을 매면서 백성들의 농사를 돕기도 한다.[18] 나이가 80여 세가 되어도 기질이 사철나무와 같고 안색이 윤택하며 걸음걸이가 나는 듯하여 겨우 마흔 정도 되어 보이며, 총명과 행실도 점점 더 나아져 일월산천의 정기와 광채가 특별했다. 눈빛이 너무 강하여 북두칠성에 쏘일 정도여서 제자들

16) <소현성록> 5권 123~125쪽.

17) 하지만 말년에는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져 자손들을 아낄 뿐 그른 일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기도 하였다. <소현성록> 15권 51쪽.

18) <소현성록> 15권 20~21쪽.

www.kci.go.kr

이 놀라는 장면도 있다. 즉 나이에 비해 정신과 총명이 갈수록 기이하고 기력이 정정하여 젊은이 같아 칭탄 받는데, 이는 젊을 때부터 수행하던 철저한 자리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색과 풍류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 욕심도 없으며 예법을 준수하므로 당대인들이 예법을 배우려면 소현성 집안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청고(淸高)함의 대명사로 불렸다.

<유씨삼대록>의 진공도 관리로 일하는 여가에 손을 책에서 놓지 않고 혹 거문고를 타며 뜻과 기운을 펴고, 부인과 거처하는 방에서는 희롱의 빛과 예의 없는 말씀이 없었으며 의관을 정제하였고, 웃으며 말하는 일이 드물었다. 밑의 관리들을 인의로 사랑하며 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리고 마음 씀이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으니 천자가 스승의 예로 존경하시고 간신과 환관의 무리가 감히 방자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하고 역병이 크게 일어나 백성들이 이를 면하지 못할 때에도 진궁과 유씨 부중은 안전했는데 이는 진공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내기를 열심히 하여 비와 바람이 순조로웠고 전염병이 없어져 편안하게 된 것이었다.[19] 덕망이 높기도 하고 재주가 신이하기도 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2) 애틋한 사랑과 자애로움 표현

국문장편 가문소설에서의 조손 관계와 부자관계를 보면, 애틋한 애정 표현이나 신체 접촉이 서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씨삼대록>에서 진왕이 아들 운현을 심하게 매질한 뒤에 정신을 못 차리자 밤낮으로 간호하여 보름 만에 눈을 뜬 운현의 손을 잡고 위로하다가 곁에 눕히고 또 어루만지면서 웃음을 머금는 것이나,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현성이 아들 운성을 매질 한 뒤에 자는 아들을 간호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19) <유씨삼대록> 20권 17~18쪽.

www.kci.go.kr

<임씨삼대록>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파고들거나 만지면서 애교를 부리는 장면도 있는 등 신체 접촉이 비교적 빈번하게 묘사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임창흥을 예뻐하는 조부모의 모습은 매우 살갑다. 창흥[20]은 할머니 품속에 들어가 아양을 떨고 귀엽게 말하거나 할아버지의 뜻을 맞춰 드려 편히 잠드시게 한다.[21] 아버지 임상국이 좋아 하는 것을 보고 초왕은 아들인 자기보다 손자인 창흥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하루는 창흥에게 과거를 보라고 권하자 자신은 아직 어리고 공부가 부족하니 글을 더 읽은 후에 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 기특해 하는데, 서술자는 이를 '끔찍이 사랑하며 지나치게 애지중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국 자신도 "이 할아비가 창흥을 사랑하는 것이 병이 되어 그 사랑에 잠겨 세상사를 모르는가 하였더니…"[22]라고 하면서 창흥이 철이 다 들었다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한다. 창흥이 태부인에게 옥선군주가 싫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꾸짖다가도 그가 감귤과 홍시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림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귀엽다고 하면서 예뻐한다. 옥선 때문에 창흥이 괴로워하자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초왕에게 화를 내는데 이는 상국이 아들 초왕을 처음으로 편치 않게 여긴 일이라 식구들이 깜짝 놀라며 천지가 뒤집힐 만한 일이라고 한다.[23]

<임씨삼대록>의 다른 부분에서도 조부모나 증조부모의 따뜻한 애정을

20) 그런데 창흥은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인물 중 하나이기는 하다. 어머니 주숙렬에게 가서 무릎에 앉아 가슴을 어루만지는데 나이가 열두 살이고 몸이 장대하지만 즐거워한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며 무릎을 베고 아양을 떤다는 표현도 몇 차례 나온다. 초왕도 딸 채혜를 대할 때에 뺨을 대고 귀여워하는 등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다.

21) <임씨삼대록> 3권 69쪽.

22) <임씨삼대록> 4권 75쪽.

23) <임씨삼대록> 10권 13쪽.

www.kci.go.kr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한 예를 들어본다. 임세린의 아들 경흥이 사천으로 외직을 나가게 되자 그 아내인 주소저가 친정에 인사하러 간 부분이다. 열 살 조금 넘은 증손녀가 남편을 따라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슬퍼하는 장면이다.

> 주소저는 증조모의 손을 받들고 증조부의 얼굴을 우러러 헤어지는 회포 끝이 없고 이별의 정이 샘솟아 스스로 슬픔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할아버지의 불편하신 기색과 아버지의 질책을 듣고는 황공하고 부끄러워 즉시 눈물을 닦으며 사죄했다. (중략)
>
> 태부인은 더욱 안타까워 다시 소저를 가까이 두고 뺨을 부비며 이마를 어루만지고 말했다.
>
> "내가 다른 손자 손녀들보다 난벽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창흥의 어미를 막내딸로 얻어 그 사랑이 천륜에 더하다가 시집 간 후 갖은 화란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적에 이 아이가 있어 그 슬픔을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아이가 없었다면 그 슬픔을 누가 위로했겠느냐? 때문에 내가 난벽을 특별히 사랑하고 제 또한 나에게 정성이 간절하여 제 출가하고 시집으로 간 후에도 한 달만 보지 못하면 서로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천리 밖 먼 이별을 당하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인정 없는 말로 책망하느냐? 너희 부자는 진실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
> 말을 하는데 기색이 심히 불편해 보였다. 이에 상서 부자가 크게 황공하여 불효함을 사죄했다. 소저는 이틀 밤을 머문 후 돌아가려 하였다. 태부인은 소저를 제 처소로 보내지 않고 품에 품어 사랑하고 한 이불을 덮고 아끼며 이별의 슬픔을 금치 못했다. 소저도 왕할머니의 허리를 안고 젖가슴을 쓰다듬으며 이처럼 늙고 약해지셨는데 생전에 자기가 다시 뵙지 못할까 슬퍼하며 눈물이 소매를 적셨다.[24]

24) <임씨삼대록> 31권 66~68쪽.

www.kci.go.kr

이별을 슬퍼하는 딸아이에게 여자의 올바른 행실 운운하며 엄하게 책망하는 손자와 아들 내외 앞에서 증조모인 태부인이 주소저를 두둔하면서 아껴주는 대목이다. 아버지와 조부만 해도 예의범절이나 도리를 내세우면서 가르치지만 증조모의 경우는 한 없이 사랑스럽기만 한 증손녀와의 관계가 부각된다.

3) 갈등 조정과 분위기 조성

노년의 여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화해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년의 여성 중에서도 서모나 고모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곤 한다. <소현성록>연작의 석파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녀는 소현성의 서모로, 여가장(女家長)인 양부인의 의중을 잘 읽어내고 늘 엄격한 소현성에게 농담을 하여 웃게 하기도 하며, 손자 운성이 소영을 첩으로 들이고 싶어 할 때에도 본부인 형씨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사시키기 위해 투호 놀이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25] 나중에 석공의 집에 피해 가 있던 소영을 다시 불러들일 때에도 운성이 석파와 투호 내기를 하여 이겨서 데려오게 된다. 할머니 양부인이나 아버지 소현성 등의 엄함 때문에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을 때에는 서조모인 석파가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석파는 또 딸과 며느리, 손자며느리 등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예를 들어 백화헌에서 꽃구경을 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소씨, 윤씨 등 딸뻘들, 화씨 석씨 등 며느리뻘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그녀들 각각의 인생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한 뒤 품평을 한다.[26] 그녀의 말에 이어 대화가 무

25) <소현성록> 5권 92~93쪽.

26) <소현성록> 2권 65쪽.

www.kci.go.kr

르익게 되면서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기도 하는 등 여성 가족들의 화해와 위로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27]

<조씨삼대록>에서도 태부인이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유현의 아내 강씨가 다른 아내를 모해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데도 유현이 다시 보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부를 화해시키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씨가 바둑을 잘 두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려고 모든 손자와 손자며느리들을 모아 놓고 바둑을 두게 한다. 역시나 강씨가 다른 손자며느리들을 다 이기자 그녀가 명랑하고 총명함을 칭찬하면서 유현에게 그녀를 용서하고 잘 대하라고 권한다.[28]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이 부부는 다시 화목하게 된다.

4)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윤리 실행

가족 관계 속에서의 노인은 대개 한 집안의 어른의 위치이기에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다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바라는 것에 비해, 어른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가문의 위상 정립이나 유지를 위해 일을 처리하곤 한다. 초기 가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현성록>의 여성 어른들이 그런 성향을 짙게 띄는데, 양부인은 절개를 잃은 딸을 죽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질투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여 아들이 재취

27) 그녀가 이렇게 가족들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긴장을 이완하는 역할을 했기에 죽음에 임해서도 모두 진심으로 슬퍼하는데 특히 소현성이 쓴 제문은 매우 절절하다. 6면에 걸쳐 길게 쓰였는데 어릴 때부터 자신을 잘 길러주신 것, 홀로 된 어머니를 정성껏 받들어 외롭지 않게 하신 것, 노년에는 여러 자손들을 다 마땅하고도 공평하게 대하면서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것 등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소현성록> 15권 41~46쪽.)

28) <조씨삼대록> 19권 102~104쪽.

www.kci.go.kr

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다. 서모인 석파도 아들 소현성이 빼어난데도 아내가 한 명뿐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아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거나 호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웃음으로 넘겨버리기도 한다. 이 노년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중심적인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29]

또한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효(孝)를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자주 서술한다. <유씨삼대록>의 유세기와 세형 형제도 부모님이 연로하시자 이를 두려워하여 8남매가 서로 의논하여 세속의 번다한 일을 다 그만두고, 형제 다섯 사람이 서헌에 모여 밤에는 부친을 모시고 자고 낮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쾌한 농담으로 즐겁게 해드리면서 그 뜻을 받들어 한 때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아침저녁 밥상이 오르는 때면 형제가 친히 주방에 가서 반찬을 살피고 그 아내들이 친히 상을 받들어 시부모님께 내왔고 많은 자손들이 차례로 모시고 앉아 먹는다. 부모님이 상을 물리면 아들들이 그 그릇 뚜껑을 열어 드신 양을 살핀 뒤에 부모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눈다. 혹 몸이 피곤하고 불편해도 자기 방에 돌아가지 않고 중당에서 장막을 친 뒤 그 사이로 가서 쉰 후에 다시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나눈다. 부인들도 집안일은 그 며느리들 즉 손자며느리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시부모님 모시기에 힘쓰며 즐거움으로 삼는다.[30]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피를 토하고 기절할 정도로 슬퍼하지만

29) 이런 모습 때문에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노년상을 고찰할 때에는 앞 장과는 달리 남녀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없었다. 다만, 3절 갈등 조정과 분위기 조성의 면은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0) <유씨삼대록> 18권 86~87쪽.

www.kci.go.kr

상례를 치를 때에는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단정히 지낸다. 하지만 손자들은 예법에 넘치게 상례를 주관하면서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곡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손자들도 이미 노년인데도 그렇게 하니 보는 사람들이 더욱 슬퍼하는데, 아버지가 살아 있는 자신을 봐서라도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꾸중하고 나서야 사죄하고 슬픔을 억제하며 견딘다.[31]

4. 나오는 말
- 가족갈등과 노인소외의 해법으로서의 고전문학

우리 고전서사문학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노년의 모습이 지혜롭고 말을 잘하며 사람 간의 중재, 인연의 매개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나라에서도 노인들을 존경하고 축수(祝壽)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소현성록>에서도 양부인이 84세가 되었을 때에 금은과 비단을 자식들에게 내려주면서 부모님께 바치라고 하고 궁중 악단인 이원(梨園)의 풍류를 내려주면서 3일간 잔치를 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잔치는 가족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과 부인들도 참석하는 대규모 잔치였다. 황제가 참석하도록 명한 것인데 그 축하객이 40여 리에 메일 정도이고 진수성찬이나 풍악소리도 매우 풍성하고 화려했다.[32] 물론 양부인이 3대(代) 공신인 소현성의 모친이자 황후의 조모였기에 그 잔치가 더욱 풍성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축수하는 것을 공론화하던 때였음을 알 수 있다.

31) <유씨삼대록> 19권 11~12쪽.
32) <소현성록> 15권 7~8쪽.

www.kci.go.kr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였음과 동시에, 가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가족은 모두 모여 살아야 함을 역설하는 대목도 있다. 조선 후기에도 이미 가족이 따로 나가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한 듯한데, 장편고전소설에서는 그런 경향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조부모와 부모가 죽고 나면 형제들이 분가하여 자기 가족만 따로 살기를 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그 전부터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는데 이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사후에 가장 노릇을 하게 된 형이 통곡을 하면서 아우들을 단속하기까지 한다. 형제가 함께 사는 게 좋으니 떠나지 말자고 하면서 흰 말의 피를 바르며 혈서로 맹세한다. 만약 집안을 어지럽히는 말을 하면 인정사정없이 다스릴 것이고 함께 살자는 맹세를 어기면 부모님의 영혼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니, 이후로는 나가 살겠다는 말이 없이 화평하였다[33]고 되어 있다. <유씨삼대록>에서도 부모를 모두 여읜 후에 진공 형제가 남매 여덟과 동거하며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받들면서 3년 상을 마쳤고, 그 후에도 슬픔이 사무쳐 처소를 옮기지 못하고 형제가 함께 서헌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34]고 되어 있다. 진공 형제가 죽고 나서도 셋째, 넷째 아들 등 다른 형제들이 화목하여 화락한 기운이 가문에 가득하고 유풍이 변하지 않았으며 재물을 사사로이 축적하지 않았고 의복과 음식을 공평하게 하여 화목한 것이 고금에 드물었다.[35]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형의 강한 권유가 이와 같이 가족의 동의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고 형제가 모여 살기도 힘들 것이지만 가족의 끈끈한 애정과 화목함 등은 본받을 만하다.

한편, 가족 관계 내에서의 노년의 모습은 자애로운 모습을 가장 먼저

33) <소현성록> 15권 78~79쪽.

34) <유씨삼대록> 19권 19~20쪽.

35) <유씨삼대록> 20권 30쪽.

www.kci.go.kr

꼽을 수 있었는데, 이는 실제 상황과도 비슷하다. 16세기 양반가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희춘의 <미암일기>에서의 조손(祖孫)관계를 보면, 유희춘은 자상한 할아버지이면서도 엄한 스승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평범했던 아들에게보다는 손자들에게 가문 창달의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자들을 직접 교육하였으며 말썽을 부리면 매를 들기도 하는 등 엄하게 글공부를 시켰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애틋한 정이 느껴지는 일화가 많은데, 맏손자 광선이 혼인할 때에는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고, 외손녀 은우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대목도 종종 있다. 이 가족의 경우에는 조손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더 밀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36]

특히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노년의 여성 인물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컸다. 이런 면이 여성 향유층의 현실과 바람을 담은 것이기도 할 터인데, <소현성록>의 양부인이나 석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양부인뿐만 아니라 첩, 즉 서모의 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석파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 물건의 출납과 손님 접대를 담당했으며 종들도 단속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신이 매우 청렴결백하여 재물을 사사로이 쓴 적이 없고 개인 재산도 전혀 모으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한다.[37] 양부인도 석파를 평가하기를, 같이 지낸 것이 70여 년이 되도록 공손하지 않은 일과 속이거나 사납게 한 일을 보지 못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말을 화려하게 잘하고 남들에게 순종적이지 않으며 잘못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 실제 행실과 예법이 엄하여 여자 중의 영웅이 될 만하다고 칭탄한다.[38]

---

36)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 2002.

37) <소현성록> 15권 34~35쪽, 37~38쪽.

www.kci.go.kr

절약하고 공평하지만 남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여 고치게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여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양부인과 석파와 같이, 또는 소부인과 윤부인, 화부인, 석부인과 같이 비슷한 연령의 노년의 여성들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등 벗이 되어 주는 관계도 긍정적인 노년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듯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고전서사문학에서는 노년의 형상이 주로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말을 잘하여 중재를 잘하며 갈등을 해소해 주는 사람, 자애와 엄격함을 함께 지닌 사람, 죽음에 임해서도 의젓하게 대처하는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노년상과 더불어, 노년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가족이 화목했던 점 등을 본받는다면 가족갈등과 노인소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대의 노인 문제나 가정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소양을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38) <소현성록> 15권 39~40쪽.

www.kci.go.kr

참고문헌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김문희 · 조용호 · 정선희 · 전진아 · 허순우 · 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김지영 · 최수현 · 한길연 · 서정민 · 조혜란 · 정언학 역주, 『임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조혜란 · 정선희 · 허순우 · 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한길연 · 김지영 · 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 2010.

김성희, 「한국 문학에 나타난 노인이미지-1960년대 이후 한국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9. 5, 217~243쪽.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 2008, 501~536쪽.

박경신, 「톡톡 튀는 화법에 섹시한 배꼽저고리」, 『우리 고전캐릭터의 모든 것』 3권, 휴머니스트, 2008, 120~133쪽.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 2002, 51~73쪽.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21, 2012, 9~40쪽.

이수곤,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57~85쪽.

이지하, 「고전소설 속 궁정적 가부장의 형상화를 통해 본 담당층의 인식 차이」, 『정신문화연구』 37-4호, 2014, 191~220쪽.

전흥남,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최일남과 문순태의 소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14, 2009.

_____,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 II, 『현대문학이론연구』 44, 2011, 461~483쪽.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사, 2012, 1~336쪽.

정인숙,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123~158쪽.

_____,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www.kci.go.kr

『문학치료연구』 19, 2011. 4, 113~141쪽.
최기숙, 「노년기 여성적 삶의 공론장, 17~19세기 여성 대상 수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87~129쪽.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 박사논문, 2006, 1~210쪽.

www.kci.go.kr

ABSTRACT

Figures of old age in Classical Narrative and their modern meanings

Jeung, Sun-hee

This paper examines figures of old age appearing in entire classical narrative. After that, it examines figures of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in which figures of old age in family relations are notably shown comparing to other subtypes of classical narrative.

Old people in classical narrative usually function as wise people who solve problems in social relationships or people who cause tension by delaying resolving a conflict. However, in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figures of old age are usually seen in family relations and their roles are focused on roles as 'grandfathers', 'grandmothers' or 'seniors of a family'. They teach their children strictly and manage themselves. They are embodied as people who are respected by others because they are capable and do not look young. At the same time, they love their grandchildren and physically contact with them. In addition, they help family members to reconcile and console by creating an atmosphere for adjusting conflicts. However, they say and act in a patriarchal manner regardless of their gender because of their status as seniors of a family. Like these, old people in classical narrative play important roles in a family and are respected by others, so figures of old age in classical narrative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for modern family conflicts and the alienation of old people.

Key Words old age, old people, grandparents, adult, senior, family, classical narrativ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

www.kci.go.kr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

www.kci.go.kr